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1번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리대공의 우주에 최첨단물과전의 산물, 자강력의 산물인 위성을 폭발시킨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다.

동지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구슬땀은 그대로 연료가 되고 추진력이 되어 주체위성이 0.001mm의 편차도 없이 정확히 우주에 쏘아 올려졌다고 말씀하시었다.

동지들은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의 전투적명령을 결사판철하기 위하여 온넉과 지혜를 바쳐 싸웠으며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대성공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주고 우리 조국의 전군을 가로막으려는 적들에게 호된 타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의 기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주체위성은 2월의 봄하늘가에 황홀한 비행을 새기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특대사건은 전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이 안아온 자랑찬 쾌승, 값높은 대승리라고, 당의 평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반만년민족사에 전무후무한 또 한차례의 위성발사라는 대성공을 안아온 동지들은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당중앙의 전투적과업을 어떻게 판철하여



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동지들은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총돌격, 총대진해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인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전진속도를 더

욱 가속시키자면 과학전선이 용을 쓰며 일어나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동지들은 오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대진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폭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지들이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실천전, 최첨단물과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위성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온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하여, 우주정부의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오늘 승

리의 기쁨을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연회참가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대성공적발사를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도 그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이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갈채를 던지셨다.

연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우주정부분야에서 최첨단물과전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공화국의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전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여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들이 우주만리대공에로 끝없이 날아오르게

할 참가자들의 드높은 애국충정의 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연회에서는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공연이 있었다.

모란봉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은 선전지명의 천세적애지와 대용단으로 남들같은 열혈병도 주저않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주정부의 위대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심장을 끓이시며 우주강국건설에 온넉과 심혈을 짱그리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성발사는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 길이라는 백두산천출위인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을 안고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우주과학의 높은

명마루를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주체의 붉은 당기울 뜻으로 삼고 백두산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여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의 레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강대한 우리 조국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며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무궁무진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연회참가자들은 한생토록 잊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대같은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과 사상도 승결도 받들음도 함께 하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본사정치보도반

